

우리나라 發明獎勵運動의 「科學데이」에서 發明의 날 紀念發明

紀念일을 中心으로

지난 5월 19일은 올해로써 21회를 맞는 「발명의 날 기념 전국발명장려대회」였다.

全國發明獎勵大會는 日帝治下에서 發明學會가 제정한 「科學데이」로 부터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그 당시 「과학데이」는 우리 민족에게 發明의 重要性 뿐만 아니라 文化生活을 영위하기 위한 文字의 普及, 生活의 科學化를 위한 의미를 가진 거국적인 행사였다.

더우기 「과학데이」는 영구운동 등 소위 「거리의 發明家」가 무지상태에서 위대한 發明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일깨워주는 등 발명가를 위해서도 의미있는 기념일이였다.

「科學데이」는 일제치하에서 민족적 운동이라는 이유로 탄압을 받다가 유명무실해 졌고, 6.25 후인 1957년에 세종대왕의 즉위기 발명일을 기념하기 위해 5월 19일을 「發明의 날」로 제정했다.

「發明의 날」은 1972년 제16회의 기념식을 끝으로 「商工의 날」에 통합되어 10년만인 지난 1982년에 기념일이 부활되긴 했으나 그 명칭이 「發明의 날 기념 전국발명장려대회」로 변경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日帝治下の 發明運動

이 땅에 特許制度의 첫 뿌리를 내리게 한 것은 구한말인 1908년 8월 12일(降熙 2년) 日本人에 의해 칙령 196호 韓國特許令 등이 公布되면서, 13일 內閣總理大臣 李完用의 이름으로 그 번역문이 內閣告示로 고시되어 16일자로 施行됨으로써 시작됐다.

日本이 한국을 침략하기 시작한 것은 1876년 「江華島條約」에서 부터이다.

그로부터 韓國을 둘러싼 淸·日간의 세력각축은 마침내 淸·日戰爭이 발발하여 日本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이로써 韓國의 自主權은 큰 손상을 입게 되었다.

그후 러·일 전쟁에서로 日本이 승리하자 일본은 미국의 중재요청으로 사실상 大韓帝國의 침략을 약속받은 「포오즈머드 강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노골적인 식민지정책을 추진했다.

1905년 乙巳保護條約으로 통감정치, 外交權박탈, 같은 해 12월 20일 한국통감부 및 이사청관제를 公布했다.

이로써 日本은 통감정치로 한국특허령 등을 칙령으로 공포하게 되었다.

그후인 1910년 韓·日合邦으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國號도 朝鮮으로 개칭해야만 했다. 이로 인한 일본의 식민지 정치가 36년 동안 이어지는 동안 우리 민족은 끊임없는 獨立運動을 전개했다.

그때 발명 특허분야의 선각자들은 언젠가는 우리민족이 독립할 것이라는 신념으로 민족의 發明運動 및 科學運動을 전개했다.

이때 가장 두드러진 단체가 發明學會와 발명학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科學知識普及協會이다.

發明學會는 1923년 1월 11일에 종로구 장사동 174번지에 사무소를 두고 발기 준비를 했다.

그후 1년이상 뚜렷한 움직임이 없다가 이듬해 8월 10일 創立總會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각계각층의 많은 참여를 위해 10월 1일에야 장사동 83번지 東洋染織株式會社 건물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 초대 理事長에 朴吉龍씨를 선출하고 오랜기간 동안 특별한 활동이 없다가 1933년 李仁辨理事를 제2대 이사장에 선출하고부터 發明運動을 벌였다.

發明學會는 이때부터 일제치하에서도 한국민족의 살길이 發明과 科學으로만 가능하다는 판단아래 회원들에게 發明思想을 고취시키고 공업지식을 보급하는데 주력했다.

「科學데이」 制定

發明學會는 1934년 2월 19일 발명학회 회관에서 전

背景

獎勵大會로

編輯室

국민에게 「모든 미신적 관념 내지 비과학적 생활에서 과학지식 관념 내지 과학적 생활으로!」라는 표어로 「科學週間」을 설정하여 年中행사로 진행키로 하고 이의 범국민적 實行委員會를 조직키로 했다.

그때 실행위원은 尹致昊, 宋鎮馬, 呂運亨, 李仁, 朴吉龍, 柳光烈, 朱耀翰, 金容瓏, 金性洙, 金活蘭씨 등 26명을 선임했다.

또 科學週間에는 旗行列, 科學에 관한 활동사진, 환등, 강연, 강좌, 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같은 해 2월 28일에는 종로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첫 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과학주간」을 「科學데이」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제정된 「科學데이」는 우리 민족사에서 科學 및 發明運動을 최초로 표출한 계기가 되었으며, 4월 19일을 「科學데이」로 제정했다. 「科學데이」는 「種의 起源」의 저자인 「찰스 다윈」(1809~1882)이 서거한 4월 19일로 정하게 된 것이다.

1934년 그 첫 「科學데이」에서는 李采鎬, 李晶燮, 安東赫씨가 종로 기독교청년회관에서 과학강연회를 했고, 「과학데이」 실행회는 東亞日報 學藝部의 후원으로 24일에는 지상좌담회를 개최했다.

東亞日報은 이외에도 3월 3일자 1면 社說에서 『科學데이會와 그 事業實行에 踴躍하라』는 제하의 社說을 통해 적극 지원했고 지면을 크게 할애해 特許出願手續法, 科學講座 獨創과 發明동의 제목으로 고정난을 마련 계속적인 지원이 있었다.

이듬해인 제2회 「과학데이」 행사는 자동차행렬 旗行列, 포스터부착 등으로 전국민에게 耳目을 집중시킬 정도로 대대적인 행사를 벌였다.

「科學知識普及會」組織

發明學會의 「科學데이」 제정으로 전국민에게 發明 및 科學운동을 펼치기 위한 운동이 일자 그 실행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科學知識普及會가 1934년 7월 5일 조직되었다.

이때 發起人은 金性洙, 金容瓏, 金日善, 朴吉龍, 宋鎮馬, 辛泰獄, 呂運亨, 柳光烈, 尹日善, 李甲洙, 李仁, 李采鎬, 朱耀翰, 曹晚植, 尹致昊씨 등 100명으로 구성되었다.

科學知識普及會는 도서편찬, 학교교육에 관한 조사, 과학강연, 과학 및 發明에 관한 좌담회, 실험회, 이동 과학보급, 과학전람회, 과학활동사진촬영 및 상영, 과학상품의 제작·판매·취급대행 등 다채롭고 야심적인 사업들을 했다.

그리고 이 보급회는 평양, 개성, 信川, 元山, 新義州 등에 支會를 설치하고 전국에 걸쳐 활발한 과학지식 보급에 힘썼다.

물론 日帝時代에는 이들 기관만이 활동한 것은 아니다.

1928년에는 조선물산장려운동하는 人士들이 발명장려를 위해 明濟世, 周利會, 金容瓏씨 등이 중심이 되어 高麗發明協會를 조직했고, 1925년에는 동경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과학문명보급회를 조직했다.

또 日人들에 의해 운영되던 朝鮮發明協會와 帝國發明協會 조선지부 등도 發明品 전시회 등을 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發明學會를 중심으로한 發明運動은 日帝治下에서도 전국민에게 發明 科學知識을 보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科學데이」 제정은 이 땅에 發明運動을 전개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때 發明學會의 제2대 理事長을 지낸 李仁 辦理士는 기관지 「科學朝鮮」 創刊號에서 發明을 이렇게 적고 있다.

「우리 人類社會生活에 要用되는 모든 施設機物이 發明의 所産이며 結晶이 아니고 무엇인가.

發明이 아니었으면 地의 東西, 時의 古今을 막론하고 그 人類社會는 純然한 暗黒場面이었을 뿐이오 歷史이니 文化이니 할 것 없이 人類生活의 모든 精華의 代名詞인 「文明」이란 것을 오늘날까지 우리 생활은 遊牧이나 水草生活로 原始狀態 그대로 지속되며 文明이니 野蠻이니 하는 구별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發明은 古今文明의 基礎이며 그 先祖이다」라고 했다.

그 예로서 신라, 고구려의 찬란한 문화를 예시하면서 「發明이 많은 民族과 國家는 隆興富裕할 것이며 發明이 없는 民族과 國家는 敗亡貧乏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러한 發明의 重要性은 우리 文化生活의 실질적인 밑바탕이 되는데도 우리는 이의 고마움을 그렇게 실감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發明의 중요성은 오늘날 우리에게서 더욱 절실히 되고 있고 先進國들은 이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國益과 결부시키고 있다.

「發明의 날」 制定

「科學데이」가 일체의 탄압속에 유명무실해지고 6.25를 겪은 1957년에 「한민족은 5백여년전부터 금속활자, 측우기, 거북선 등 어느 민족보다 먼저 발명한 사물이 있고 建國이래 發明件數가 많아지고 있어, 선조때부터 계승된 국민의 발명사상을 앙양하고 과학 기술의 보급 향상과 발명사업을 장려」코자 「발명의 날」을 제정했다.

1957년 2월 6일 상공부장관 주재 하에 李丙禧, 黃義敦, 李仁, 周利會, 李采鎔 등을 위원으로 우리나라의 産業과 관련이 많고 세계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는 測雨器의 발명의 날인 1442년 5월 19일을 기념하기 위해 每年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정했다.

첫 「발명의 날」인 1957년 5월 19일에는 상공부, 문교부, 내무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발명협회, 대한상의, 대한기술총협회, 각 통신, 신문사가 후원하는 큰 행사를 치루었다.

20일 거행된 기념식에는 대통령의 유서, 장관의 기념사 등이 있었고 지방에서도 도청소재지에서나 각급 학교에서도 기념식을 가졌다. 홍보도 포스터·표어·전단살포, 선전탑, 현수막설치, 애드버튼 설치를 했으며 각 신문사에도 발명에 관한 기사를 크게 다루어 주었다. 또 방송도 방송극과 발명의 노래 보급을 하는 등 지원이 있었다.

그리고 發明家의 성공담, 논문, 방송극, 작문, 발명의 노래, 표어에 대한 공모에서 당선작에 대해 부문별로 수상을 했다. 그밖에도 發明의 집 건립, 기념우표 발행, 스텝트 발행, 발명지 창간, 조지훈 작사 김동진 작곡 발명의 노래 제작, 각도단위 응원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벌였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公炳禹(한글타자기 발명)등에 대

해 대통령상이 주어졌다.

그후 「發明의 날」 行事는 72년 16호까지 치루었다.

그러나 73년도에는 총무처가 「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 지금까지 統一性없이 시행되어 오던 각종 기념행사를 폐지하거나 조정토록 함에 따라 「電氣의 날」「計量의 날」「發明의 날」을 통합하여 商工部주관하의 「商工의 날」에 통합했다. 이로써 발명의 날은 독립을 잃고 그 행사도 「상공의 날」에 하게 됐다.

이때부터 「發明의 날」은 우리 민족이 日帝治下에서 「科學데이」로 부터 계승되어 오던 중요한 행사가 하루 아침에 「계량의 날」「電氣의 날」과 同一視되어 「商工의 날」에 흡수, 통합되는 우를 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日帝治下에서 「科學데이」로 정해져 發明과 科學運動의 분기점이 됐던 그날은 둘로 나뉘어져 「發明의 날」과 과학기술처가 발족한 4월 21일을 기념하는 「科學의 날」로 나뉘어지고 말았다.

또 「發明의 날」은 9년 동안 행사가 없다가 1982년 5월 19일에 그 17회 기념식을 열면서 명칭을 바꾸어 「發明의 날 기념 全國發明獎勵大會」로 명칭이 바뀌었고 發明에 공이 많은 사람들에게 시상도 하고 發明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日本의 예를 보자. 日本은 1885년 4월 18일 「전매특허조례」의 公布日을 「發明의 날」로 정하고 있다.

이로써 日本은 지난해 공업소유권제도 창설 100주년 기념행사가 거행된 바 있다.

그 歷史가 말해주듯 日本은 우리처럼 「發明의 날」 行事가 역사적으로 끊어진 일은 없다.

또 日本은 「發明의 날」을 결코 소홀히 취급하지 않고 있다.

「發明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또 선각자는 「發明은 古文明의 基礎이다」라고 했다. 오늘날 명칭조차 거추장스럽게 된 발명장려대회는 우리 민족이 日帝治下에서 어떤 운동도 배제했던 시기에 發明을 부르짖고 科學을 부르짖던 歷史的 사실과 비교해 볼 때 축소되어진 감이 없지 않다.

〈資料提供：大韓辨理士會〉

(案) 本會 工業所有權 研修講座 (內)

特許管理要員의 資質向上을 위하여 本會는 年中 短·中·長期 研修講座를 수시로 實施하고 있습니다.

積極 參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것은 本會 研修部(557-1077~8)로 問議바랍니다.